

석(鳥)에 적용된 회차(續次)와 수차(繡次)의 배색원칙

최 연 우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Principles of Coloration for Hoecha and Sucha Applied to Seok

Yeon-Woo Choi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Dankook University
(투고일: 2014. 5. 7, 심사(수정)일: 2014. 5. 13, 게재확정일: 2014. 7. 30)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way that the principles of coloration for *Hoecha*(續次; 繪次) and *Sucha*(繡次) were applied for shoe making in ancient *China* and *Korea*. *Hoecha* is the principle of drawing, and *Sucha* is the principle of embroidery. *Hoecha* and *Sucha* is the application principle of the five colors(五方色) from the five elements(五行: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Hoecha* matches a color with the opposite side color, and *Sucha* matches a color with the beside color. A shoe consists of *Sinul*(body of shoe) and ornaments attached to it. According to the ratings of shoes, *Hoecha* and *Sucha* were differently applied for coloration of *Sinul* and its ornaments. In general, shoes were classified into *Seok*(鳥) and *Gu*(屨). For *Seok*, which was the high-ranked shoes, *Hoecha* was applied, while *Sucha* was applied to *Gu*, the low ranked shoe. As *Hoecha* was originally a principle of coloration for patterns on tops(jacket. 上衣), it was applied to the high ranked shoes i.e., *Seok*. Also, as *Sucha* was a principle of coloration for patterns on bottoms(skirt. 下裳), it was applied to the low ranked shoes i.e., *Gu*. Thus, black was decorated on red *Seok*, blue on white *Seok*, red on black *Seok*, yellow on hyeon(玄: a kind of black color) *Seok*, and white on blue *Seok*, all of which were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Hoecha*. A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Hoecha* to *Seok* was also done for red *Seok* for males and females in late *Joseon*, and red *Seok* for the crown prince in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black decorations were used for red *Sinul*. However, for blue *Seok*, worn by females in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where *Ming's* systems prevailed, black decorations were used, which was an application of *Sucha*. Though there had been no discrimination between genders in the application of *Hoecha* and *Sucha* originally, the low ranked principle of coloration was applied to *Seok* for females.

Key words: *Hoecha*(續次; 繪次: the principle of drawing), *Jeik-ui*(翟衣), *Myeon-bok*(冕服), *Seok*(鳥), *Sucha*(繡次: the principle of embroidery), the five elements(五行: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I. 머리말

조선의 전례서(典禮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전하면복(殿下冕服)'에는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에 표현하는 무늬에 관해 “그림을 그리는 것[繪]은 양(陽)의 일이므로 상의에 있고, 자수를 놓는 것[繡]은 음(陰)의 일이므로 하상에 있다.”¹⁾라는 내용이 있다. 위[上]는 양에 해당하고 아래[下]는 음에 해당하므로, 무늬를 표현할 때 상의에는 양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하상에는 음을 상징하는 자수를 놓는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면복에 그림과 자수로 무늬를 표현할 때는 배색에 있어 원칙 없이 임의로 색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자수 각각에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상의와 하상에 무늬를 표현할 때 뿐만 아니라 예복에 신는 신에도 적용된다. 특히 신 중에서 남녀가 최고 등급의 예복에 신는 석(鳥)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석에 관해서는 크게 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남자와 여자 예복 즉 면복과 적의 연구, 의례복 즉 혼례복이나 제례복에 관한 연구 등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시대와 남녀에 따른 형태 차이 등 기본적인 내용도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특히 본고에서 다룰 배색원칙에 관해서는 전혀 고찰된 적이 없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석의 형태와 특징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염두에 두고 총3편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그 마지막 연구이다. 앞서 2편의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의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종류와 형태, 명칭, 장식 등에 관해 남녀로 나눠 각각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석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유래에 관해 살폈다.²⁾ 본 논문은 석의 신율과 장식에 적용된 배색원칙에 관한 고찰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고대의 예서(禮書)에 제시된 배색원칙인 회차(續次)와 수차(繡次)에 관해 고찰한다. 회차와 수차는 지금까지 복식사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는 미술사나 색채사학계에서도 전혀 소개되지 않은 이론이므로, 그 기본원리 및 상징 등에 관해 상세히 살펴계 될 것이다. 이어,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녀로 나눠 한국 석에 나타나는 신율과 장식간의 배색을 정리하고, 그 배색에 회차와 수차의 원칙이 준용된 정도와 변용된 양상에 관해 고찰한다.

연구는 문헌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는 방법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회차와 수차의 원칙은 고례서(古禮書)인 『주례』와 『의례』에 상세히 기록되는데, 그 원리 및 상징을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문헌 내용을 이론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고에서 고찰할 회차와 수차의 원칙은 동아시아 철학의 주축이 되는 천지(天地)와 오행(五行)을 응용한 이론으로, 오행의 상생(相生), 상극(相剋)과 더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이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식사학계는 물론 색채사학이나 미술사학 등 기타 학계에서 전혀 주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천지와 오행의 운용 및 복식에의 적용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여 전통복식 및 전통문화의 이해에 보다 풍부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본고까지 총3편으로 나눠 진행한 연구를 통해 형태와 배색 등에 나타나는 한국 석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 연구의의가 있다.

II. 회차와 수차의 배색원칙

1. 고대 신의 종류와 구조

1) 신의 종류: 석(鳥)과 구(履)

흔히 신목이 없이 신율만 있는 신을 통칭하는 한자로 혜(鞋)를 쓴다. 그러나 '혜'가 신의 통칭이 된 것은 대략 수당(隋唐)시대에 이르러서이고, 그 이전에는 리(履)가 신의 통칭이었다. 또 '리'는 대략 전국시대(戰國時代) 이전까지는 동사 '밟다(踏)'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신의 통칭으로 주로 쓰인 것은 전국시대 이후의 일이다. 전국시대 이전에 신의 통칭은 구(履)였다.³⁾ 즉 신의 통칭은 구-리-혜로 변천해 온

것이다. 그런데 ‘구’는 신의 통칭이기도 하지만, 신을 크게 두 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등급의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인(履人)은 왕 및 왕후의 예복에 착용하는 구(履)를 관장한다. 적석(赤鳥)과 흑석(黑鳥)을 만드는데 적색 역(纒)과 황색 역, 청색 구(句)[絢]가 있고, 소색 구[素履]와 짚을 재료로 한 구[葛履]를 만든다.”⁴⁾

『주례』 「구인(履人)」의 내용이다. 구인은 궁중의 신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직이고, 「구인」편에서는 그들이 담당하는 직책을 서술한다. 위 내용은 구인 관직이 천자인 왕과 그 배우자인 왕후의 예복에 착용하는 신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신의 통칭으로 ‘구’를 말하였고, 그 아래에 다시 석(鳥)과 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를 통해 ‘구’는 광의와 협의의 의미가 있음이 파악된다. 광의로는 신의 통칭이고, 협의로는 석과 구별되는 별도의 신이다.

그렇다면 석과 협의의 구(이하에서 ‘구’라 하면 협의의 구를 말함)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 경문에 대해 한대(漢代)의 주석가(注釋家)인 정현(鄭玄: 127-200년)과 당대(唐代)의 주석가인 가공언(賈公彥: ?-?년)은 아래와 같이 주석하였다.

정현 주(注): “아래[下]를 겹[復]으로 한 것을 석(鳥)이라 하고, 아래를 홀로 한 것을 구(履)라 한다.”

가공언 소(疏): “아래[下]는 바닥[底]을 말하고, ‘겹[復]’은 이중바닥을 말한다. 바닥을 이중으로 한 것은 ‘석’이라 하고, 바닥을 홀로 한 것은 ‘구’라 한다.”⁵⁾

또 『방언(方言)』과 『고금주(古今注)』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다.

『방언』: “비(扉), 구(履), 추(麤)는 리(履)이다. ……중간에 나무가 있는 것은 복석(復鳥)이라 하는데, 관동(關東)에서는 ‘복리(復履)’라 한다.”⁶⁾

『고금주』: “석은 나무를 리(履)의 아랫부분에 댄 것으로, 건조하게 하여 진흙과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⁷⁾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신 중에서 바닥을 이중으로 해서 그 사이에 나무를 대면 ‘석’이라 하고, 바닥을 홀로 하면 ‘구’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석과 구로 대별되는 신율이 없는 신은 다시 예복의 등급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세부 종류는 신율과 장식의 배색을 고찰할 때 다시 언급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핀다.

2) 신의 구조

위에서 본 것처럼 석과 구는 겹바닥인지 혹은 홀바닥인지의 여부로 구분하지만, 다른 구조는 같다. 즉 석과 구 모두 신의 몸체인 신율이 있고, 여기에 장식인 구(絢: 句), 역(纒), 준(純), 기(綦) 등이 붙여져 <그림 1>⁸⁾과 같은 형태가 된다. 위에서 인용한 『주례』 「구인」의 경문에 대한 주석에서 정현과 가공언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정현 주: “석(鳥)과 구(履)는 구(絢), 역(纒), 준(純)이 있는데, 장식이다.”

가공언 소: “역(纒)은 신율과 신바닥이 서로 만나는 곳의 솔기 그 가운데에 끈목[條]을 붙인 것이다. 구(絢)는 신의 앞머리에 끈목으로 코를 만든 것이다. 준(純)은 끈목으로 신 입구에 가선을 만든 것이다.”⁹⁾

신율 외에 구, 역, 준의 장식이 있는데, 모두 끈목[條]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장식의 위치도 파악된다. 구는 앞쪽 중앙에 있는 신코이고, 중앙에 구멍이 나도록 동그랗게 만든다. 착장자의 행동을 구속(拘束)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¹⁰⁾ 역은 신율과 신창을 꿰맨 솔기 위에 붙이는 끈목이다. 준은 신 입구 가장자리에 두르는 가선이다.

한편 신의 장식은 구, 역, 준 외에 기(綦)가 있다. 기는 신의 뒷꿈치에 다는 끈이다. 신을 신을 때, 이 끈의 양쪽 끝을 앞으로 보내 구에 관통시킨 후 발 등에서 묶는다.¹¹⁾



〈그림 1〉 신의 구조
- 儀禮圖.

2. 신의 종류에 따른 회차와 수차의 적용 및 예외

위에서 신목이 없이 신울만 있는 신은 크게 바다의 형태에 따라 석과 구로 대별되고, 이 석과 구는 예복에 따라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석과 구의 세부 종류 및 여기에 적용되는 회차와 수차의 배색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용했던 『주례』 「구인(屨人)」의 경문과 이에 대한 정현의 주석을 보자.

“구인(屨人)은 왕 및 왕후의 예복에 착용하는 구(屨)를 관장한다. 적석(赤鳥)과 흑석(黑鳥)을 만드는데 적색 역(繒)과 황색 역, 청색 구(句)[絢]가 있고, 소색 구[素屨]와 짙을 재료로 한 구[葛屨]를 만든다.”

정현 주(注): “왕(王)의 길복(吉服)은 9가지가 있고, 석은 3등급이 있다. 적석(赤鳥)이 상등(上等)인데, 면복에 신는 석이다. ……아래등급에 백석(白鳥)과 흑석(黑鳥)이 있다. 왕후(王后)의 길복은 6가지가 있고, 제복(祭服)에만 석을 신는다. 현석(玄鳥)이 상등인데, 휘의(褱衣)에 신는 석이다. 아래등급에 청석(靑鳥)과 적석이 있다. 국의(鞫衣) 이하에는 모두 구(屨)를 신을 뿐이다.

‘구(句)’는 마땅히 ‘구(絢)’로 적어야 하는데, 발음이 유사하여 오기(誤記)가 생긴 것이다. 구(絢), 역, 준은 같은 색으로 하는데, 여기서 ‘적색 역, 황색 역, 청색 구’라 한 것은 호언(互言)¹²⁾을 섞어 말한 것이다. 석과 구(屨)가 여러 개이므로 돌이켜서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석의 장식은 회차(績次)와 같게 한다. 적색 역은 왕의 흑석의 장식이고, 황색 역은 왕후의 현석의 장식이며, 청색 구(絢)는 왕의 백석의 장식이다. ‘역’을 말하면 반드시 구(絢)와 준이 있고, ‘구(絢)’를 말하면 또 역과 준이 있어서, 삼자(三者: 구, 역, 준)는 서로 동반되는 것이다. 왕 및 왕후의 적석은 모두 흑색으로 장식하고, 왕후의 청석은 백

색으로 장식한다.

모든 구(屨)의 장식은 수차(繡次)와 같게 한다. 황구(黃屨)는 백색으로 장식하고, 백구(白屨)는 흑색으로 장식하며, 흑구(黑屨)는 청색으로 장식한다. 천자와 제후는 길례(吉禮)에 모두 석을 착용하고, 그 나머지 신분은 면복을 입거나 적문(翟紋)이 들어간 옷을 입을 때만 석을 착용할 뿐이다. 사(士)는 작면복에 훈구(緁屨)를 신는데, 흑색으로 구(絢), 역, 준을 장식한다. 제복에 신는 구(屨)를 높여서 회차를 따른 것이다.”¹³⁾

위 내용에서 남녀별 석과 구의 세부 종류 및 등차, 배색 등에 관한 규정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왕(천자)의 길복(吉服)은 대구면(大裘冕), 곤면(袞冕), 별면(鶯冕), 취면(毳冕), 치면(希冕; 絺冕), 현면(玄冕)의 육면복(六冕服)과 위면복(韋弁服), 피면복(皮弁服), 관면복(冠弁服)의 삼면복(三弁服) 등 총 9가지가 있다.¹⁴⁾ 왕후의 길복은 휘의(褱衣), 요적(揄狄)[翟翟], 궤적(闕狄; 屈狄), 국의(鞫衣), 전의(展衣; 禮衣), 단의(緣衣; 緣衣)의 6가지가 있는데, 이 중 앞의 세 옷은 모두 제복으로 착용하였고 적문(狄紋)[翟紋]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대에 ‘삼적(三翟)’이라 하였다.¹⁵⁾

왕과 왕후의 예복은 각 종류에 따라 석과 구를 차별화해서 신는다. 왕의 석은 적석, 백석, 흑석이 있다. 여기서 ‘적석’, ‘백석’ 등의 명칭은 신울의 색을 기준으로 한다. 적석은 신울이 적색이고, 백석은 신울이 백색이며, 흑석은 신울이 흑색이다. 왕은 9가지 예복에 모두 석을 쓰는데 면복에는 적석, 위면복과 피면복에는 백석, 관면복에는 흑석이다. 왕후의 석은 현석(玄鳥),¹⁶⁾ 청석, 적석이 있다. 예복 중 적문이 있는 삼적에만 석을 쓰는데 휘의에 현석, 요적에 청석, 궤적에 적석이다. 왕후의 구는 황구, 백구, 흑구가 있다. 황구는 국의, 백구는 전의, 흑구는 단의에 신는다. 왕후의 석과 구는 모두 예복의 색을 따른 것으로, 휘의는 현석, 요적은 청석, 궤적은 적석, 국의는 황석, 전의는 백석, 단의는 흑석이다.¹⁷⁾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석은 구보다 높은 등급의 신으로, 중요한 예복에 착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왕과 왕후의 길복 중 일부는 다른 신분도 착용할 수 있다. 대구면은 왕만 입지만, 곤면복부터 관

변복까지는 제후 이하 대부까지 신분에 따라 종류를 차별화하여 착용할 수 있다. 또 휘의는 왕후만 입지만, 요적부터 단의까지는 기타 내외명부가 신분에 따라 종류를 차별화하여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석의 사용에 있어 왕은 예복에 모두 석을 신고 이는 같은 군주 신분인 제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기타 신분은 면복에만 석을 신고 나머지 옷에는 구를 신는다. 즉 천자와 제후는 위변복, 피변복, 관변복에도 석을 신지만, 그 아래 신분은 이들 옷에 석이 아닌 구를 신는다. 여자용 예복에서는 왕후가 적문이 들어간 옷을 입을 때만 석을 신고 나머지 옷에는 구를 신는데, 다른 신분도 적문이 들어간 옷에 석을 신고 나머지 옷에 구를 신는다.

천자와 제후를 제외한 아래 신분이 변복(弁服)에 석이 아닌 구를 신는 상황은 『의례』 「사관례」에서도 보인다.

“현단(玄端)에는 흑색 구(屨)를 신고, 청색으로 구(絢), 억(纒), 준(純)을 장식한다. ……소적(素積)에는 백색 구를 신고, ……치색(緇色: 검은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한다. 작변복(爵弁服)에는 혼색(纁色: 붉은색) 구를 신고, 흑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한다.”¹⁸⁾

사(士) 신분이 관례를 행할 때 초가(初加)에 현단복(玄端服)을 입는데 그 신은 흑구(黑屨)를 신고, 재가(再加)에 피변복을 입는데 신은 백구(白屨)를 신으며, 삼가(三加)에 작변복(爵弁服)을 입는데 신은 혼구(纁屨)를 신는다는 예법을 명시한 것이다. 혼색(纁色)은 붉은색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석에는 적색, 백색, 흑색, 현색, 청색이 있고, 구에는 황구, 백구, 흑구, 혼구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신의 배색에 있어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하나는 구(絢), 억, 준 등의 장식을 모두 같은 색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석과 구(屨)의 신율과 장식간의 배색에는 각기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회차(纁次)와 수차(繡次)가 등장한다.

회차와 수차에 관해서는 위 「구인」 경문에 대한 정현의 주석에서 비교적 상세히 파악된다. 그 내용에 의하면 석에는 회차의 원칙으로 배색을 한다. 적색에

는 흑색, 백색에는 청색, 흑색에는 적색, 현색에는 황색, 청색에는 백색을 써서 장식을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에는 수차의 원칙으로 배색을 한다. 황구에는 백색, 백구에는 흑색, 흑구에는 청색을 써서 장식을 하는 것이다(표 1). 이 배색원칙에서 남녀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자는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고 여자는 수차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차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현의 주석에서는 구에 수차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임을 밝히면서 예외적으로 작변복에 신는 혼구는 회차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 인용한 「사관례」 경문에 대한 정현과 가공언의 아래와 같은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정현 주(注): “작변복의 구(屨)는 흑색으로 장식한다. 작변복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 구의 장식은 회차(纁次)에 따른다.”

가공언 소(疏): “위에서 흑구에 청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하고, 백구에 흑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한다고 했는데, 백색과 흑색, 흑색과 청색은 수차(繡次)의 일이다. 여기서의 원칙에서는 작변복에 혼구를 쓴다고 했다. 혼색은 남방의 색인 적색을 말하는데, 서방의 백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하지 않고 북방의 흑색으로 구, 억, 준을 장식하는 것은 반대방향[對方]끼리 배색한다는 회차(纁次)를 취하여 장식한 것이다. 석의 배색과 같은 것인데, 작변복이 제복(祭服)인 것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장식을 석과 같게 한 것이다.”¹⁹⁾

회차는 오방색에서 반대방향[對方]에 있는 색끼리 배색하는 것이고, 때문에 남방 붉은색의 반대방향에 있는 북방 흑색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또 작변복의 신에 회차를 적용하는 것은 석의 배색원칙과 같은 것이고, 이는 제복으로 착용하는 작변복을 존귀하게 생각하여 높이기 위한 것임을 말하였다. 이에 비해 현단복과 피변복에 신는 흑구와 백구에 각각 청색과 흑색으로 장식하는 것은 수차의 원칙임도 말하였다.

면복은 본래 대부까지만 입고 그 아래의 신분인 사는 입을 수 없다. 사가 착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옷은 작변복이고, 따라서 제례를 행할 때 사는 작변복을 입는다. 작변복에는 본래 구를 신고, 원래의 원칙대로라면 구에는 수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작변복에 신는 혼색(붉은색) 구에 수차를 적용하면 흑색

<표 1> 왕(천자)과 왕후의 예복별 신의 종류 및 배색

신분	연번	예복	신	배색	배색원칙
왕 (천자)	1	大裘冕	赤鳥	흑색	績次
	2	袞冕			
	3	鷩冕			
	4	毳冕			
	5	希冕[緇冕]			
	6	玄冕	白鳥	청색	
	7	韋弁			
	8	皮弁			
	9	冠弁			
왕후	1	禕衣(玄衣)	玄鳥	황색	績次
	2	揄狄(青衣)	靑鳥	백색	
	3	闕狄(赤衣)	赤鳥	흑색	
	4	鞠衣(黃衣)	黃屨	백색	繡次
	5	展衣[禮衣](白衣)	白屨	흑색	
	6	緣衣[祿衣](黑衣)	黑屨	청색	

으로 장식하면 안되지만, 이 훈구는 예외적으로 석과 같은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여 흑색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의 작번복은 제복으로 입는 것이므로, 제복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관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의 종류에 따라 회차와 수차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 존귀한 신은 회차를 적용한다는 것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현단복과 피번복의 흑구와 백구에 적용되는 수차는 등급상 회차보다 낮은 단계에 적용되는 원칙인 것도 파악된다.

3. 회차와 수차의 기본원리 및 상징

위에서 석과 구의 배색에 각기 회차와 수차가 적용된다는 점과 구체적인 배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작 회차와 수차의 기본원리가 무엇이고, 석과 구의 배색이 왜 위와 같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아래에서는 회차와 수차의 기본원리를 살핀다.

먼저 회차와 수차의 개념을 보자.

회차(績次)의 '績'은 본래 '퀘'로 읽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회'로 읽는데, '그리다'라는 의미의 '회(繪)'와

같은 뜻이고 '회(會)'로도 쓴다.²⁰⁾ 『주례』에는 「회회(畫績)」 관직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회회(畫繪)」로도 쓸 수 있다. 오늘날에는 「그림」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회화(繪畫)」를 쓰지만, 엄격히 분류하면 「회(繪)」와 「화(畫)」는 서로 다른 공정을 뜻하는 한자이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어 그 위에 색을 써서 그림을 완성한다. 선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畫)」라 하고, 색을 쓰는 것은 「회(繪)」[績]라 한다.²¹⁾ 조선시대 도화서(圖畫署)에서 왕실 그림을 그리던 화원(畫圓)이 선화(善畫: 종6품), 선회(善繪: 종7품), 화사(畫史: 종8품), 회사(繪史: 종9품)²²⁾ 등으로 구분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색을 배치하는 원칙이 바로 회차이다. 한편 회회 관직은 그림을 그리는 일 뿐만 아니라 자수(刺繡)를 놓는 일도 담당하였는데, 자수를 놓기 위해서는 선으로 밑그림을 그려야하기 때문이다.²³⁾ 자수를 놓을 때 색을 배치하는 원칙이 바로 수차이다.

회차와 수차의 기본원리는 「회회」의 아래내용에서 확인된다.

①경문(經文): “화회의 일은 오색을 섞은 것이다. 동방은 청색이고, 남방은 적색이고, 서방은 백색이고, 북방은 흑색이다. 천(天)은 현색이고, 지(地)는 황색이다. 청색과 백색을 서로 배색하고, 적색과 흑색을 서로 배색하며, 현색과 황색을 서로 배색한다.”

정현 주(注): “이 내용은 화회가 쓰는 6가지 색이 상징하는 것과 색을 배치하는 것의 순서를 말한 것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상의(上衣)를 만든다.”

가공언 소(疏): “‘회(纁)’라고 한 것은 대방(對方)을 들어서 말한 것으로, ‘동방’이하의 내용이 이것이다. ……‘청색과 백색을 서로 배색한다’ 이하는 상의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대방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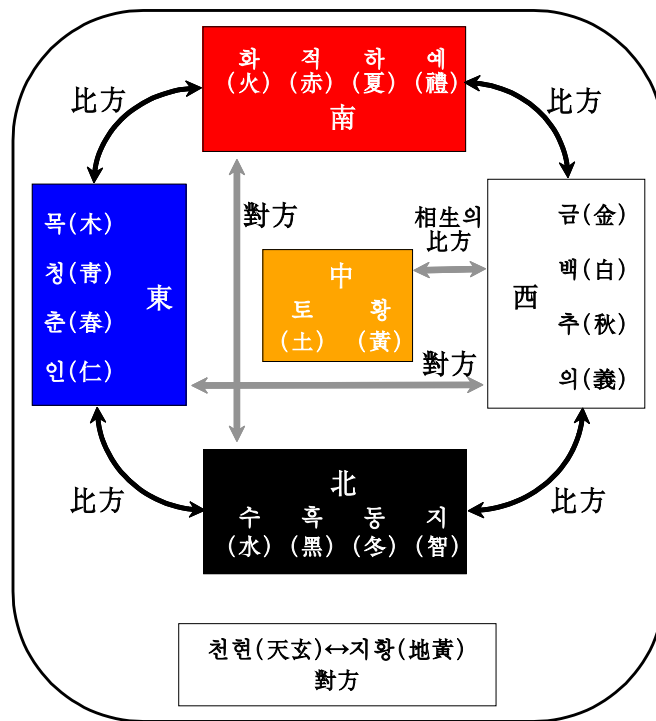
②경문(經文): “청색과 적색을 배색한 것을 문(文)이라 하고, 적색과 백색을 배색한 것을 장(章)이라 하고, 백색과 흑색을 배색한 것을 보(黼)라 하고, 흑색과 청색을 배색한 것을 불(黻)이라 한다. 오채(五彩)를 다 갖춘 것을 수(繡)라 한다.”

정현 주(注): “이 내용은 자수를 놓을 때의 색의 사용을 말한 것으로, 자수를 놓아 하상(下裳)을 만든다.”

가공언 소(疏): “이 경문은 모두 비방(比方)의 색으로 자수를 놓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²⁵⁾

앞서 「사관례」의 가공언 소(疏)에서 회차의 원칙을 말하면서 반대방향 즉 대방(對方)의 색끼리 배색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위 「화회」 내용을 통해 대방이란 천지(天地)의 색과 오방(五方)의 색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천(天)을 상징하는 색은 현색이고 그 대방인 지(地)를 상징하는 색은 황색이다. 또 오방색에서 동쪽 청색의 대방색은 서쪽 백색이고, 남쪽 적색의 대방색은 북쪽 흑색이다. 때문에 회차 곧 대방의 색을 적용하는 석에서는 적색에 흑색, 백색에 청색, 현색에 황색으로 배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차의 원칙에서는 옆에 있는 방향 즉 비방(比方)의 색끼리 배색한다. 오방색에서 동방 청색의 비방색은 남방 적색, 남방 적색의 비방색은 서방 백색, 서방 백색의 비방색은 북방 흑색, 북방 흑



〈그림 2〉 纁次와 繡次의 배색원칙 - 필자 그림

색의 비방색은 동방 청색이다. 때문에 수차 곧 비방의 색을 적용하는 구에서 백색에 치색(검은색) 혹은 흑색, 흑색에 청색을 배색한 것이다. 또 상생(相生)의 관념을 적용시켜서 보면, 상생이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生水(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므로 청-적, 적-황, 황-백, 백-흑, 흑-청이 상생하는 색이다. 여자용 황색 구에 백색 장식을 하는 것은 상생의 색 역시 비방의 색으로 인식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대방과 비방의 배색은 <그림 2>에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머리맡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차와 수차는 본래 면복의 상의와 하상에 12장문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놓을 때의 배색원칙이다. 상의에 무늬를 표현할 때는 그림을 그리고 하상에 무늬를 표현할 때는 자수를 놓는데, 그림을 그릴 때 회차의 방식을 적용하고 자수를 놓을 때 수차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의에 그림을 적용하는 것은 그림이 양(陽)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하상에 자수를 적용하는 것은 자수가 음(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즉 오행에서 상(上)은 천(天)-양(陽)의 관념과 연계되고, 하(下)는 지(地)-음(陰)의 관념과 연계되는데, 상의의 무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양을 상징하게 하고 하상의 무늬를 자수로 표현해서 음을 상징하게 한다.²⁶⁾

위 원리는 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 신 중에서 제복에 착용하는 석과 사(士)가 제례에 착용하는 훈구는 존귀하므로 다른 신보다 높은[上] 위치에 있다. 때문에 상의의 배색원칙인 회차의 방식을 적용하여 양의 상징성을 갖게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구(履)는 석보다 아래등급[下]의 신이므로 하상의 배색원칙인 수차의 방식을 적용하여 음의 상징성을 갖게 한 것이다. 석과 구의 등급에 따른 차별에 더하여 신울과 장식간의 배색에 양과 음의 상징을 함유시킴으로써 구와 차별화되는 석의 존귀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Ⅲ. 한국 석에서의 회차와 수차의 준용과 변용

우리나라 석 제도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중국 고대 예서에서는 신을 석(鳥)과 구(履)로 대별하여 예복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하여 착용하게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고려시대 이래 주로 석에 관한 제도가 나타난다. 본 장(章)에서는 우리나라 석의 배색에 관해 고찰하여 고려서에 제시된 회차와 수차의 준용과 변용양상을 파악한다.

1. 남자용

우리나라의 사료 중 석의 배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 고려시대에는 정종9년(1043)부터 강종원년(1212)까지 거란, 송(宋), 요(遼), 금(金), 명(明)에서 고려왕에게 복식을 보내고, 이 외 왕세자의 관복도 보내온다. 그러나 그 신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석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사항은 의종 때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왕과 신하의 면복에 적색, 원유관복에 흑색을 신는다. 그리고 장식의 배색은 왕의 적색에서만 확인되는데, 억과 준은 신울과 같은 적색이고 구는 청색이다.²⁷⁾ 고대 문헌에서 '청색'으로 기록되는 경우 대개 밝은 청색이 아닌 흑색에 가까운 청색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에 청색을 썼다는 것은 흑색을 쓴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시대 남자용 석의 배색에는 회차의 원칙이 일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면복과 원유관복 모두 적색을 신고, 이는 왕, 왕세자, 왕세손 등에게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의 석은 고려서에 제시된 신목이 없는 형태가 아니라 화(靴)와 유사하게 신목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송대에 관원들이 예복에 화와 리(履)를 번갈아 신다가 양자를 결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정조와 순조 연간에 신목이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순조 이후부터 대한제국까지는 고레처럼 신목이 없이 신울만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렇게 신의 기본형태가 변하면서 장식도 변형된다. 구(絢)와 억은 없어진다. 준(純)은 '도리[回伊]'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영·정조대까지의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는 신의 중간에 해당하는

발목 부분에 둘러지다가 신목이 사라진 순조 이후에는 고례에서처럼 신 입구의 가장자리에 둘러진다. 재료는 끈목이다. 또 같은 재료로 발등에 술을 달았고, 이 술은 음차(音借)하여 '수아(綬兒)'나 '소울(蘇兀)'로 표기하였다. 기(綦)는 영자(纓子)로도 부르고, 영·정조 이전까지는 발목 부분에 있다가 영·정조 대부터 대한제국까지는 신 입구에 달리게 된다.

배색을 보면, 조선전기 태종3년(1403)에 명(明)에서 보낸 적석에는 준을 소색(素色)으로 한다.²⁸⁾ 적색에 소색을 배색했으므로 회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신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두 적색에 아청색으로 도리와 술을 하고, 신울과 같은 대홍색으로 기(綦)를 한다.²⁹⁾ 기는 고례에서도 회차와 수차의 배색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도리와 술을 장식한 아청색은 청색을 약간 띠는 흑색이므로, 적색에 흑색 장식은 고례와 같은 회차의 배색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후기로 가면서 석의 기본형태를 고례와 같은 형태로 회복하는데, 배색에 있어서도 고례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제국시대 황제의 적석은 『대한예전(大韓禮典)』의 제도³⁰⁾와 유물 <그림 3>³¹⁾에서 모두 검은색[玄]으로 술을 하고, 황색으로 도리를 한 것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도리와 술을 같은 재료에 같은 색으로 했는데, 대한제국에서는 도리와 술의 색을 다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적색에 검은색 술 장식을 한 것은 조

선시대와 마찬가지로 회차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리에 황색을 쓴 것은 회차의 원칙과 무관한 것이다. 이 제도는 명(明)의 제도를 따른 것인데³²⁾, 명의 사료에서 도리를 황색으로 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배경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황태자는 『대한예전』의 제도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도리와 술을 흑색으로 규정하였지만³³⁾, 실제 영친왕이 착용한 흑백사진 <그림 4>³⁴⁾를 보면 도리의 색이 옅은색으로 나타나므로 황제와 같은 황색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에서는 적색에 흑색 장식으로 하여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이상과 같이 남자용 석은 전반적으로 고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엄격하게 회차의 원칙을 준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기본형태에서 고례를 회복함과 동시에 배색에 있어서도 고례를 회복하여, 적색에 회차의 원칙을 따라 대방의 색인 흑색으로 장식을 했음이 확인된다.

2. 여자용

고려시대 여자용 석은 말기에 왕비가 심청색 적의와 함께 신은 청색에 관한 기록이 있다. 다만 신울이 청색이라는 점 외에 장식의 색은 언급이 없다.³⁶⁾

조선시대에는 대삼제적의에 석을 신는데, 왕비와 대비는 적색이고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흑색이다. 모두 적의의 색을 따른 것인데, 대비는 자색 적의이



<그림 3> 황제(추정) 적석
엘칸토박물관 소장
- 靴·鞋·履, p. 133



<그림 4> 영친왕 면복의 적석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 왕실문화도감, p. 56

지만 그 신은 적석이다. 또 상례(喪禮)의 습(襲)에 장삼(長衫)을 쓰는데, 조선전기에는 여기에 리(履)를 신기지만 1718년 경종의 세자빈인 단의빈(端懿嬪)부터 석을 사용한다.³⁷⁾ 장삼과 함께 사용한 석은 각 신분별로 적의의 색을 따른다. 예를 들어 왕비는 장삼에 적석을 쓰고, 왕세자빈은 흑석을 쓰는 것이다.

여자용 석은 1600년대 초반까지는 신목이 없는 형태였다가 1600년대 전반기에 남자용과 같은 신목이 있는 형태로 바뀌고, 다시 순조 이후 신목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색은 왕비 적석에서 확인되는데, 모단(冒緞)으로 가선장식[緣飾](인원왕후와 정성왕후의 『상례의례』에서 이를 ‘환영(圓纓)’이라 하였음)을 하였다.³⁸⁾ 모단은 검은색이다. 따라서 왕비 적석의 배색은 남자용 적석과 마찬가지로 회차의 원칙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례에서 회차와 수차를 적용시킴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던 전통을 이은 것이다.

대한제국시대에는 적석, 청석, 흑석 등이 사용된다. 적석은 명헌태후가 상례의 대렴(大斂)에 적의의 일습으로 쓰고 또 습에 장삼과 함께 썼으며, 순명효황후 민씨와 순헌황귀비 엄씨의 장례에 장삼과 함께 사용되었다. 청석은 황후와 황태자비가 심청색적의에 신었고, 또 순헌황귀비 엄씨가 원삼(圓衫)과 함께 신기도 하였다. 흑석은 여흥부대부인 민씨가 노의(露衣)와 함께 사용하였다. 이들 석의 배색은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고, 유물이 남아있는 황후와 황태자비의 심청색적의 일습인 청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순정효황후 윤씨의 청석 <그림 5>³⁹⁾는 장식이 청현색인데

색이 바랜 것을 고려하면 본래 검은색이었을 것이다. 또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비의 청석 <그림 6>⁴⁰⁾은 장식이 검은색이다. 청색 신물에 흑색 장식을 했으므로, 비방의 색끼리 배색하는 수차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 여자용 석의 배색 제도는 한대부터 원대(元代)까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⁴¹⁾ 그러다가 명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제도가 규정된다.

○황후 관복: “예복. ……영락3년의 제도. ……석은 청색 기(綺)를 쓰고 금(金)으로 운룡문(雲龍紋)을 묘사하여 장식하고, 검은색[黼] 선으로 준(純)을 한다. 각 석의 앞머리에는 진주 5알을 장식한다.”

○황비(皇妃), 황태자비, 친왕비 관복: “예복. ……영락3년의 제도. ……청색 비선과 석을 신는다. ……석은 청색 기(綺)를 쓰고 금(金)으로 운봉문(雲鳳紋)을 묘사하여 장식하고, 검은색[黼] 선으로 준(純)을 한다. 각 석의 앞머리에는 진주 3알을 장식한다.”

○군왕비(郡王妃) 관복: “예복. ……영락3년의 제도. ……청색 비선과 석을 신는다. ……석은 청색 기(綺)를 쓰고 금(金)으로 적문(翟紋)을 묘사하여 장식하고, 검은색[黼] 선으로 준(純)을 한다. 각 석의 앞머리에는 진주 3알을 장식한다.”⁴²⁾

황후부터 군왕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석에 흑색으로 장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제국의 복식제도는 기본적으로 명의 제도를 따르는데, 여자용 석의 배색에 있어서도 명과 같게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명과 조선의 여자용 석에서 수차의 원칙을 따른 청색과 흑색의 배색은 고례와 다른 적용 방식이다. 고례에서는 석과 구를 신의 등급에 따라 회차와



<그림 4> 영친왕비 청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p. 67



<그림 3> 순정효황후 청석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 문화재대관, p. 55

수차를 차별화시켜 적용시키기는 했으나 남녀에 따라 차별화시키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전통시대 남녀 관념에서 남자를 위[上]-천(天)과 연계시키고 여자를 아래[下]-지(地)와 연계시키던 관념이 명대에 석에 적용되었고 이 규정이 대한제국에서도 준용되어, 남자용 석에는 회차를 적용하고 여자용 석에는 수차를 적용하였다. 고례에서 신에 적용한 회차와 수차의 배색원칙이 후대에 변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석에 적용된 배색원칙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회차와 수차는 본래 『주례』와 『의례』 등의 고례에서 면복의 상의와 하상에 무늬를 표현할 때의 배색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繪]은 상(上)-천(天)-양(陽)과 연계되므로 상의에 그림으로 무늬를 표현하여 양을 상징하고자 하였고, 자수는 하(下)-지(地)-음(陰)과 연계되므로 하상에 자수로 무늬를 표현하여 음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림과 자수로 무늬를 표현할 때는 임의로 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배색원칙이 있다. 그림으로 무늬를 표현할 때의 배색원칙은 회차이고, 자수로 무늬를 표현할 때의 배색원칙은 수차이다.

신목이 없이 신울만 있는 신을 고대인들은 석(鳥)과 구(屨)로 구별하였다. 구별 기준은 바닥의 구조인데, 석은 바닥을 이중으로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대었고 구는 바닥을 홑으로 하였다. 이 석과 구는 또 등급의 구별이 있어서 석의 등급이 높고 구의 등급이 낮다. 때문에 고대인들이 각종 상황에 착용한 예복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높은[上] 옷에는 석을 신고, 등급이 낮은[下] 옷에는 구를 신었다.

석과 구의 등급 구별은 신울과 장식(구(紉), 억(纒), 준(純))의 배색에도 영향을 미쳤다. 등급이 높은 신인 석은 상의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인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등급이 낮은 신인 구는 하상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인 수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석에는 양의 상징성을, 구에는 음의 상징성을 함유시키고자 하였다.

회차와 수차는 천지와 오방의 색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이론이다. 천-현, 지-황, 동-청, 남-적, 서-백, 북-흑, 중-황의 색들을 회차에서는 반대방향[對方]의 색끼리 배색하고, 수차에서는 옆에 있는 방향[北方]의 색끼리 배색한다. 즉 회차에서는 현-황, 청-백, 적-흑으로 배색한다. 때문에 적석에는 구, 억, 준의 장식을 흑색으로 하고, 백석에는 청색, 흑석에는 적색, 현석(玄鳥)에는 황색, 청석에는 백색으로 장식을 한다. 또 수차에서는 청-적, 적-백, 백-흑, 흑-청으로 배색하고, 또 상생(相生)의 관념을 적용시키면 이 외에 황-백의 배색이 생긴다. 때문에 황구(黃履)에는 장식을 백색으로 하고, 백구(白履)에는 흑색, 흑구(黑履)에는 청색으로 장식을 한다.

고례(古禮)에서 회차와 수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석과 구의 등급에 따른 차별은 나타나지만 남녀에 따른 차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남녀 모두 석에는 회차를, 구에는 수차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석에서 회차와 수차는 고례의 원칙대로 적용된 면도 있지만 그와 달리 변용된 면도 나타난다.

남자용은 고려시대 적석에 회차 원칙이 일부 장식에 적용되기도 했으나 장식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조선전기 적석에는 회차나 수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후기에는 형태에서 신목이 없는 고례의 형태로 회복함과 동시에 배색에서도 장식을 흑색으로 하여 고례대로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대한제국 황제 적석에서는 술에 회차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도리[回伊]에는 적용되지 않았고(명의 제도를 따른 것임), 황태자 적석은 제도에서는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여 흑색으로 했으나 실제 착용된 석은 황제와 같은 것으로 하여 제도대로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용 석에서는 조선후기에 고례가 준용되었다.

여자용은 조선후기에 남자용과 마찬가지로 적석에 흑색으로 장식을 하여 회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시대에 황후와 황태자비가 신은 청석에는 흑색으로 장식을 하여, 수차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 여자용 석에 수차를 적용한 것은 고례에 남녀를 차별화하지 않던 원칙에서 변용된 양상이고, 이는 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고문헌

- 1) 國朝五禮儀 卷1 吉禮 ‘祭服圖說’: “繪, 陽事也, 故在衣繡, 陰功也, 故在裳.”
- 2) 최규순(2013), 조선시대 석(烏) 연구, *복식* 63-2, pp. 144-161; 최연우(2013), 대한제국시대 석(烏)의 고찰 및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의 유래, *복식* 63-8, pp. 125-142.
- 3) 崔圭順(2007),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 上海: 東華大學校出版社, p. 207.
- 4) 周禮, 屨人: “屨人掌王及后之服屨, 爲赤烏·黑烏, 赤纒·黃纒·青句, 素屨·葛屨.”
- 5) 周禮, 屨人, 鄭玄注: “複下曰濁, 禪下曰屨.” 賈公彥疏: “下謂底, 複, 重底, 重底者名曰烏, 禪底者名曰屨也.”
- 6) 揚雄(漢), *方言*, 卷4: “屨·屨·屨, 履也. ……中有木者謂之複濁, 自關而東複履.”
- 7) 崔豹(晉), *古今注* (1998,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濁, 以木置履下, 幹履不畏泥濕也.”
- 8) 張惠言(清), *儀禮圖*, ‘烏’.
- 9) 周禮, 屨人: “屨人掌王及后之服屨, 爲赤烏·黑烏, 赤纒·黃纒·青句, 素屨·葛屨.” 鄭玄注: “烏·屨有紉·有纒·有純者, 飾也.” 賈公彥疏: “言纒是牙底相接之縫, 綴條於其中, 言約謂屨頭以條爲鼻, 純謂以條爲口緣.”
- 10) 儀禮, 士冠禮: “屨, 夏用葛, 玄端黑屨, 青紉·纒·純.” 鄭玄注: “紉之言拘也, 以爲行戒, 狀如刀衣鼻, 在屨頭, 纒, 縫中紉也, 純, 緣也.” (『周禮』 「屨人」의 정현 주에도 같은 내용 있음); 禮記, 玉藻: “童子不裘不帛, 不屨紉.” 鄭玄注: “紉, 屨頭飾也.”
- 11) 禮記, 內則: “屨, 著綦.” 鄭玄注: “綦, 屨系也.”; 儀禮, 士喪禮: “組綦系於踵.” 賈公彥疏: “則綦當屬於跟後, 以兩端向前, 與約相連於跗之上合結之, 名爲繫於踵也.”; 儀禮, 士喪禮: “乃屨綦結於跗.” 鄭玄注: “跗, 足上也.”
- 12) 互言은 한문의 서술 원칙으로, 문장이 번잡해지는 것을 위해 반복되는 같은 뜻의 글자를 생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이해할 때는 하나의 한자를 앞뒤 내용에 서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구인」 經文에서 적색과 흑색의 장식으로 적색과 황색의 纒 및 청색 句[約]만 언급했지만, 여기에는 적색 纒, 구, 준, 황색 纒, 구, 준, 청색 纒, 구, 준이 각각 포함된다. 이를 정현注와 가공언疏에서 설명하고 있다.
- 13) 周禮, 屨人: “屨人掌王及后之服屨, 爲赤烏·黑烏, 赤纒·黃纒·青句, 素屨·葛屨.” 鄭玄注: “王吉服有九, 烏有三等, 赤烏爲上, 冕服之烏, ……下有白烏·黑烏, 王后吉服六, 惟祭服有烏, 玄烏爲上, 禕衣之烏也, 下有青烏·赤烏, 鞞衣以下皆履耳, 句當爲約, 聲之誤也. 約·纒·純者同色, 今云赤纒·黃纒·青句, 雜互言之, 明烏·屨衆多, 反覆以見之. 凡烏之飾, 如績次, 赤纒者, 王黑烏之飾, 黃纒者, 王后玄烏之飾, 青句者, 王白烏之飾, 言纒必有約·純, 言約亦有纒·純, 三者相將, 王及后之赤烏皆黑飾, 后之青烏白飾, 凡屨之飾, 如綉次也, 黃屨白飾, 白屨黑飾, 黑屨青飾, 天子·諸侯吉事皆烏, 其餘惟服冕衣翟著烏耳, 士爵弁纒屨, 黑約·纒·純, 尊祭服之屨飾, 從績也.”
- 14) 周禮, 司服: “王之吉服, 祀昊天上帝, 則服大裘而冕, 祀五帝亦如之, 享先王則袞冕, 享先公·饗射則鷩冕, 祀四望·山川則毳冕, 祭社稷·五祀則希冕, 祭群小祀則玄冕. ……凡兵事, 韋弁服, 視朝, 則皮弁服. 凡甸, 冠弁服.”
- 15) 周禮, 內司服: “內司服掌王后之六服, 禕衣, 揄狄, 闕狄, 鞠衣, 展衣, 緣衣, 素沙.” 鄭玄注: “鄭司農云: ‘……展衣, 白衣也, ……鞠衣, 黃衣也. ……’玄謂……今世有圭衣者, 蓋三翟之遺俗, 鞠衣, 黃, 桑服也. ……此緣衣者, 實作緣衣也. 緣衣, 御於王之服, 亦以燕居, 男子之緣衣黑, 則是亦黑也. 六服備於此矣, ……以下推次其色, 則闕狄赤, 揄狄青, 禕衣玄.”
- 16) 女色과 黑色: 두 색은 모두 ‘검은색’으로 번역된다. 다만 검은색을 대표하는 단어가 ‘흑색’이라면, ‘현색’은 붉은색을 약간 띄는 검은색을 나타낸 漢許慎의 『說文解字』(卷4下)에서 “검은색이지만 적색이 있는 것이 현색이다(黑而有赤色者爲玄)”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색은 붉은색과 검은색 염료에 총6번을 담가서 얻어지는 색으로 추정된다. 『爾雅』 「釋器」(卷6)에서 “한 번 염색한 것을 緇, 두 번 염색한 것을 黓, 세 번 염색한 것을 緇이라 한다(一染謂之緇, 再染謂之黓, 三染謂之緇)”라 하였다. 또 『周禮』 「鍾氏」의 “세 번 넣으면 緇이 되고, 다섯 번 넣으면 緇가 되고, 일곱 번 넣으면 緇가 된다(三入謂緇, 五入爲緇, 七入爲緇)”라는 經文에 대해 鄭玄은 “훈색을 염색하는 것은 세 번 넣어서 완성된다. 또 흑색으로 두 번을 염색하면 緇가 된다. ……또 흑색으로 두 번을 다시 염색하면 마침내 緇가 완성된다. ……무릇 현색이라는 것은 추색과 치색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여섯 번 넣는 것인가(染緇者, 三入而成, 又再染以黑, 則爲緇, ……又復再染以黑, 乃成緇矣. ……凡玄色者, 在緇·緇之間, 其六入者與?)라 하였고, 賈公彥은 “훈색에 만일 적색 염료를 넣으면 朱가 된다. 만일 적색이 아닌 흑색 염료에 넣으면 紺이 된다. 만일 다시 이 감색을 흑색 염료에 넣으면 緇가 되니, 여기서 다섯 번 넣으면 추색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다시 이 추색을 흑색 염료에 넣으면 玄이 되므로, 여섯 번 넣어서 현색이 된다. ……다시 이 현색을 흑색 염료에 넣으면 일곱 번을 넣어서 緇라 하는 것이다(緇若入赤汁, 則爲朱, 若不入赤而黑汁, 則爲紺矣, 若更以此紺入黑, 則爲緇, 而此五入爲緇是也. ……若更以此緇入黑汁, 卽爲玄, 則六入爲玄. ……更以此玄入黑汁, 則名七入爲緇矣).”라 하였다. 종합하면, 검은색을 얻고자 할 때 세 번까지는 붉은색 염료에 담그고, 네 번째부터 검은색 염료에 담근다. 붉은색에 1번을 담그면 緇, 2번은 黓, 3번은 緇이 되고, 이어 4번째에 검은색 염료에 담그면 紺, 5번째에 역시 검은색 염료에 담그면 緇, 6번째에 검은색 염료에 담그면 玄, 7번째에 검은색 염료에 담그면 緇가 된다. 현색은 붉은색 염료에 3번, 이어 검은색 염료에 3번을 넣어 완성된다. 위 『주례』의 정현과 가공언의 주석에서 검은색 염료를 대표하는 한자로 ‘黑’을 쓰고 있고, ‘玄’은 이 흑색 염료에 담가서 얻어지는 하나의 색으로 말한다. 따라서 ‘흑’이 검은색을 대표하고 ‘현’은 그 검은색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방과 天地의 색을 표현함에 있어, 본문 II-3에 인용된 『주례』 「화회」의 내용(각주24)에 의하

- 면 오방색에서는 '흑색', 天을 나타내는 색에서는 '현색'이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알 수 있다.
- 17) 각주 15) 참조.
- 18) 儀禮, 士冠禮: “玄端黑履, 青紵·縹·純, 純博寸. 素積白履, 以魁柑之, 緇紵·縹·純, 純博寸. 爵弁纁履, 黑紵·縹·純, 純博寸.”
- 19) 儀禮, 士冠禮, 鄭玄注: “爵弁履以黑爲飾, 爵弁尊, 其履飾以纁次.” 賈公彥疏: “上黑履以青爲紵·縹·純, 白履以黑爲紵·縹·純, 則白與黑, 黑與青爲纁次之事也. 今次爵弁纁履, 纁, 南方之色赤, 不以西方白爲紵·縹·純, 而以北方黑爲紵·縹·純者, 取對方纁次爲飾, 舉烏者, 尊爵弁是祭服, 故飾與烏同也.” 번역 중 '색이 배색과 같은 것인데'의 원문은 '舉烏者'이다. 그런데 '舉烏者' 그대로 번역할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고, 이에 대해 李學勤 主編의 『儀禮注疏』 표점본(1999, 北京: 北京大學出版社)에서 '與烏同'의 오기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번역한 것이다.
- 20) 『尙書』 「虞書·益稷」에서는 면목의 12장문에 관한 언급에서 '會[繪]'라 하였고, 『禮記』 「玉藻」 정현注에서는 “纁는 會로도 쓴다(纁, 或作會)”라 하였다.
- 21) 禮記, 禮運: “初畫曰畫, 成文曰纁.”
- 22) 經國大典, 卷1, 吏典·雜職·圖書署.
- 23) 周禮, 畫纁, 賈公彥疏: “畫·纁並言者, 言畫是總語, 以其纁·縹皆須畫之, ……凡縹亦須畫, 乃刺之, 故畫·縹二工, 共其職也.”
- 24) 周禮, 畫纁: “畫纁之事, 雜五色, 東方謂之青, 南方謂之赤, 西方謂之白, 北方謂之黑, 天謂之玄, 地謂之黃, 青與白相次也, 赤與黑相次也, 玄與黃相次也.” 鄭玄注: “此言畫纁六色所象及布彩之第次, 纁以爲衣.” 賈公彥疏: “言纁, 則據對方而言, 自‘東方’已下是也, ……青與白相次已下, 論纁於衣, 爲對方之法也.”
- 25) 周禮, 畫纁: “青與赤謂之文, 赤與白謂之章, 白與黑謂之黼, 黑與青謂之黻, 五采備謂之縹.” 鄭玄注: “此言刺縹彩所用, 縹以爲裳.” 賈公彥疏: “此一經皆比方爲縹次.”
- 26) 周禮, 畫纁, 賈公彥疏: “衣在上, 陽, 陽主輕浮, 故畫之, 裳在下, 陰, 陰主沉重, 故刺之也.”
- 27) 高麗史, 卷72, 輿服志1 冠服: “(王)祭服, ……毅宗朝詳定……衰冕九旒……赤烏, 赤縹·赤純·青紵·綦帶.”
- 28) 太宗實錄, 태종3년 10월 27일(辛未): “大紅紵絲烏一雙, 【上帶素絲縹條, 青熟絲線結底.】” 여기서 “위에 소색 견사로 만든 끈목을 두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純을 의미한다.
- 29) 尙方定例, 卷2, 別例 上: “赤烏, 表大紅廣的. ○內拱白羅. ○昌白羅. ○纓子次大紅廣的. ○回伊蘇兀及昌訥非音鴉青眞絲, 襟白正布柒尺, 縫作白絲貳錢.”; 國朝喪禮補編圖說, ‘大斂’: “【圭以下至赤烏用平日所御者】……烏 表用紅熟絹 裏白熟絹 純及綬兒【卽蘇兀】用鴉青眞絲 左右及後從純側綴白絹小羈子 用紅絹爲綦貫而結之.”
- 30) 大韓禮典, 卷4, 祭服圖說 ‘皇帝冕服’: “烏: 烏以赤緞爲之, 黃條緣, 玄纓結.”
- 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靴·鞋·履,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133.
- 32) 大明會典, 卷60, 禮部18, 冠服1, ‘皇帝冕服’: “嘉靖八年定……赤烏, 黃條緣, 玄纓結.”
- 33) 大韓禮典, 卷4, 祭服圖說 ‘皇太子冠服’: “烏以赤緞爲之, 黑鈎純, 黑飾烏首.”
- 34) 국립고궁박물관 (2012),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p. 56.
- 35) 이상 고려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의 신율과 장식간의 배색에 관한 내용은 머리말에 제시한 두 편의 선행연구(최규순, *op. cit.*, pp. 144-161; 최연우, *op. cit.*, pp. 125-142)에 근거해 정리하였다. 아래 여자용식의 배색도 마찬가지이다.
- 36) 高麗史, 卷72, 輿服志1 冠服: “王妃冠服,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孝慈皇后賜冠服……翟衣青質, 繡翟九等, ……青烏.”
- 37) 端懿嬪殯宮都監儀軌, 殯宮三房 ‘襲’: “黑烏一部……長衫.”
- 38) 國朝喪禮補編圖說, ‘襲’: “【內喪所用】烏, 表用紅廣織【小內喪冒緞】, 裏白羅·糊紙爲之, 緣飾用冒緞, 以紅綠絲作花三瓣, 綴於當跗【足背】處.”
- 39)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p. 55.
- 40) 金英淑 (2002),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서울: 新西, p. 67.
- 41) 隋書, 卷11, 禮儀志6: “(北周)皇后及諸侯夫人之服, 皆烏·履, 三妃·三公夫人已下, 翟衣則烏, 其餘皆履.”; 隋書, 卷12, 禮儀志7: “(개황연간) 皇后禕衣, 【深青織成爲之.】……青鞵·烏, 【烏加金飾.】……皇太子妃綵翟, 【青織成爲之.】……青鞵·烏, 【烏加金飾.】……(대업원년) 皇后……禕衣, 深青質, ……青鞵·烏, 烏以金飾. ……皇太子妃, 服綵翟之衣, 青質, ……青烏, 烏加金飾.”; 舊唐書, 卷45, 輿服志: “武德令, 皇后……禕衣……其衣以深青織成爲之, ……青鞵·烏, 【烏加金飾.】……皇太子妃服……綵翟【青織成爲之.】……青鞵·烏, 【烏加金飾.】”; 宋史, 卷151, 輿服志3: “后妃之服, 一曰禕衣……青鞵·烏, 烏以金飾.”; 金史, 卷43, 輿服志 中: “皇后冠服, ……禕衣, 深青羅織成, ……烏, 以青羅製, 白綾裏, 如意頭, 明金·黃羅準上用, 玉鼻仁眞珠裝, 綴繫帶.”
- 42) 大明會典, 卷60, 冠服1, ‘皇后冠服’: “禮服, ……永樂三年定……烏用青綺, 飾以描金雲龍文, 皂線純, 每烏首加珠五顆.”; ‘皇妃冠服’, ‘皇太子妃冠服’, ‘親王妃’: “禮服, ……永樂三年定……青鞵·烏……烏用青綺, 飾以描金雲鳳文, 皂線純, 每烏首加珠三顆.”; ‘郡王妃冠服’: “禮服, ……永樂三年定……青鞵·烏……烏用青綺, 飾以描金翟文, 皂線純, 每烏首加珠三顆.”